



수산 · 환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137-8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Tel. 02) 2105-2740 / Fax. 02) 2105-2759

목 차 : 지구촌 이슈 / 주요뉴스와 분석 / 간추린 지구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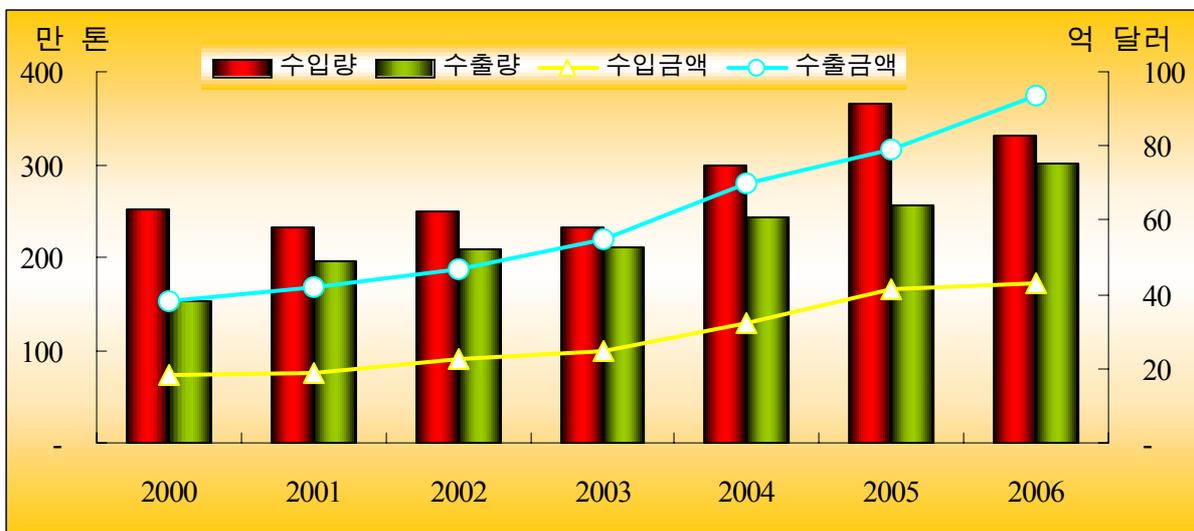
지구촌 이슈

2006년 중국 수산물 수출입 동향

■ 2006년, 중국의 수산물 교역금액 137억 달러에 달해

- 2006년에 중국의 수산물 교역량과 금액은 각각 634만 톤, 136억 6,000만 달러에 달하였음
- 이 중 수출량과 금액은 전년 대비 17.4%, 18.7% 증가한 302만 톤, 93억 6,000만 달러로, 전체 농산물 수출금액의 30.2%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수입량과 금액은 각각 332만 톤, 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물량이 9.2% 감소한 반면 금액은 4.4% 증가하였음

【 중국의 수산물 수출입 추이 】



■ 수산물 수출에서 자국산이 63.2% 차지

- 수산물 수출에서 자국산 수산물은 63.2%, 수입 원료 재가공 수출수산물은 36.8%를 차지하였음
 - 자국산 수산물에서 양식 수산물의 수출량과 금액은 각각 118만 톤, 46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수산물 수출의 39%, 49%를 차지하였음
- 지역별로 보면 산둥(山東), 광둥(廣東), 랴오닝(遼寧), 저장(浙江), 푸젠(福建), 하이난(海南) 등 순으로, 상위 6개 지역의 수출금액이 전체 수산물 수출금액의 91.2%를 차지하였음
 - 내륙지역에서는 장시(江西)가 가장 많고 후베이(湖北), 지린(吉林)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주요 수출대상국으로는 일본, 한국, 미국, EU 등으로 이들 국가로의 수출금액은 전체 수산물 수출금액의 88.6%를 차지하였음
- 평균 수출가격은 톤 당 3,104달러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이 중 해조류가 30% 오른 반면, 갑각류가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 소비용 수산물 수입, 9% 증가

- 수입수산물 중 국내 소비용 수산물은 약 71만 톤으로 전년 대비 9% 늘었으며, 가공 원료 및 어분의 수입량은 각각 164만 톤, 98만 톤에 달하였음
 - 주요 수입 품목은 갈치, 오징어, 가자미, 대구, 새우, 청어 등이었음
- 평균 수입가격은 톤 당 1,294달러로 전년 대비 15% 올랐는데, 이는 평균 수출가격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어분과 국내 소비용 수산물의 수입가격은 각각 40%, 70% 상승하였고 가공원료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 중국, '走出去' 전략으로 수산물 교역 촉진

- 중국은 '走出去(진출)' 전략으로 국내외 시장과 자원을 이용하여 수산물 교역을 촉진할 계획임
 - 지난해 국내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자국산 수산물의 수출량이 전년 대비

11.8% 늘었으며, 가공원료의 수입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가공기술 및 안전성 강화

- 2005년에 미국이 중국산 냉동 새우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실시한 후 중국의 수출가공기업들은 저차가공에서 고차가공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음
 - 지난해 고차가공 새우 수출은 전체 새우 수출금액의 83%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53.4% 증가하였음
 - 또한, 지난해 중국 농업부는 전국적으로 수산물품질안전관리업무회의를 개최하여 건강양식을 추진하고 수산물의 표준화, 브랜드화를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전국적으로 농약 잔류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합격률이 97%로 높았음

■ 산업지대를 건설하여 수출 확대 유도

- 중국정부는 수산물 양식을 강화하여 지역 특색이 있는 수산물수출지대를 건설할 예정임
 - 현재 대하, 뱀장어, 틸라피아, 해조류는 일정한 규모의 수출지대를 형성하였음
- 이처럼 중국은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즉 국내외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중국의 수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가공기술을 높여 안전성을 확보하며, 산업지대를 구축하여 세계 시장에서 중국 수산물의 위상을 높일 예정임

<이은화, yhli19@kmi.re.kr>



주요뉴스와 분석

■ 중국 농업부, 패류 안전성 관리 강화

- 지난 12일에 중국 농업부는 '패류 유독유해물질 잔류 검사 계획'을 발표하여 패류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 본 계획은 해면양식 패류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음
- 대상 품목은 각 지역의 주요 패류 품목을 선택하기로 하였는데, 수출이 많은 굴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 또한 샘플을 채취할 경우, 반드시 여기에 채취해야 하고 양식장, 재래시장, 도매시장, 대형할인마트 등을 포함해야 하며
 - 채취 기간은 5월에서 9월로 각 지역에서 2차례 샘플을 채취하는데, 채취 장소는 동일해야 함
- 각 지역 어업행정주관부문을 본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샘플 채취 및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업무상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 중국수산과학연구원은 기술 지도와 검사 결과 분석 등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7월 30일과 12월 10일에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어업국으로 제출하기로 하였음
- 중국이 패류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게 된 원인은 최근에 패류 수출이 점점 늘어나면서 안전성 문제가 각 국의 주의를 끌고 있기 때문임
 - 또한 5월에 미국 FDA가 중국의 패류 위생체계에 대해 검사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임
- 이처럼 패류는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만큼 중국 정부가 패류의 안전성 관리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은화, yhli19@kmi.re.kr>

■ 일본의 새우 소비구조 변화, 베트남 생산구조에 영향

- 일본의 새우 소비 구조 변화가 베트남의 새우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2006년도 일본의 냉동새우 수입은 약 20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 중 베트남산 새우가 약 2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베트남의 대일수출 주력품목은 냉동 블랙타이거였으나 최근 흰다리새우의 수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 오사카 베트남상무부에 따르면 흰다리새우의 대일 수출이 급증하면서 올해 수입량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주력상품인 블랙타이거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현재 주력상품인 블랙타이거도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안정된 공급과 튀김요리에 적합하다는 크기면의 강점이 부각되면서 점차 시장을 석권해왔으나
 - 최근에는 공급 안정 및 가격 측면의 강점에 더해 조리 방법의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흰다리새우의 비중이 서서히 높아지기에 이른 것임
- 일본의 상무성 아시아태평양부에 따르면 베트남 이외에도 필리핀 농업성이 최근 흰다리새우의 수입·양식금지령을 정식으로 해제하고, 태국도 흰다리새우 양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일본의 새우 소비구조 변화가 새우 주요 생산국가의 생산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됨
 - 일본의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자국의 공급 구조에 변화를 주고 있는 베트남의 사례는 수산물 소비에 있어서도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임경희, imkh@kmi.re.kr>

■ 미국 하와이, 자망어업(gill net fishing)금지

- 미정부 당국자는 특정한 어획방법이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연구보고서가 발표된 후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고자 결정하였음
 - 새로운 법률은 마우이(Maui)섬과 오아후(O'ahu)주변 3개 지역에서 자망어업에 대한 전반적인 금지를 담고 있으며
 - 구체적으로 모든 그물에 인식표를 부착해야하고 야간에 그물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또한 그물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 자망은 낮에는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며 이러한 규제는 자망을 근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법률은 실제로는 완전한 자망어업 금지 법률임
- 국토 및 자원부(Department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 관계자에 따르면 더욱 책임 있고 적절한 어획 방법을 통한 이러한 하와이의 연근해 자원보호를 위한 시도는 의미 있는 일이라 말하면서
 - 이와 더불어 그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시행

되지 않으면 해양자원 감소라는 추세를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하였음

- 마지막으로 연근해 자원을 보호하고자하는 하와이의 노력은 획기적인 결정이며 현재 남획으로 인한 자원감소를 막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함
- 현재 태국 역시 한시적이지만 부화시기동안은 자망의 사용을 금지하고 14미터 이상의 그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처럼 세계 각국은 어획자원보호를 위해 자망어업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추세가 점차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 우리 연근해 어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망어업과 관련,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강형덕, thymos@kmi.re.kr>

■ FAO, 불법어업 규제안 도출에 합의

- 지난 3월 5일부터 5일간 로마에서 개최된 제27차 FAO 수산위원회(COFI)는 13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법적 강제력을 지닌 불법어업 단속 합의문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음
 - COFI는 불법 어업을 퇴치하기 위해 양륙, 환적, 가공이 이뤄지는 항만(port state)을 단속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거친 뒤 불법 어업 규제 가이드라인 가안(draft version)을 만들 예정이며
 - 2009년에 개최되는 수산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임
- 입항하는 어선이 항만 단속(Port State Control)을 받기 위해서는 접안 승인 및 화물 검사를 받기 전에 선박에 관한 제반 사항(background)을 항만국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후 항만국은 선박 관련 서류와 화물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
 - 회의 참가국은 항만에서 이뤄지는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불법어업을 단속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음
 - 허가증(permission)이 없거나 보호 어종을 어획한 경우 또는 불법 어구를 사용하였거나 어획 쿼터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불법 어업으로 간주하고 이를 단속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FAO는 불법어업 이력이 있는 어선의 정보를 체계화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검사관을 훈련시킬 것을 권고하였음

- 전 세계적으로 불법 어업이 어업 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세계 어업 자원 관리 체계를 약화시킨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그간 국제 사회에서 불법 어업에 관한 논의는 많이 이뤄졌지만 구속력 있는 규범 설정으로 불법어업을 단속하자는 논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 적어도 2년 후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동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규제 내용을 포함해 향후 논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정명화, jmh@kmi.re.kr>



간추린 지구촌 소식

■ 상하이 수산그룹, 마셜제도에 다랑어 가공수출기지 건설 예정

- 상하이(上海) 수산그룹은 마셜제도에 6,000만 달러 투자하여 다랑어 가공수출기지를 건설할 예정임
 - 본 기지에서 다랑어의 연간 어획량은 3만 2,000톤, 가공량은 1만 8,000톤으로, 연간 수입은 4,6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지난해, 푸젠성 수산사료 65만 톤 생산

- 지난해 푸젠(福建)성은 수산사료를 65만 톤 생산하여 전년 대비 21.5% 늘었는데, 이 중 뱀장어 사료가 약 20% 차지하였음
 - 푸젠성은 81개의 수산사료 가공공장이 있으며 연간 생산량이 6만 톤 이상인 가공공장이 3개 있음

■ 지난해, 장시성 수산물 수출 51.2% 늘어

- 지난해 장시(江西)성의 수산물 수출량과 금액은 각각 1만 1,900톤, 1억 2,7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5.8%, 5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장시성은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시성 농업국, 수출입 검역국, 대외무역협력청 등 세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출 업무를 간소화하였음

■ 일본 수산청, 해삼 및 성게 불법어업 엄벌화 법안 제출

- 수산청은 24일 일본요리점 및 초밥전문점에서 인기가 있는 해삼 및 성게 등의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음
 - 현행 징역 6개월을 3년으로, 벌금 10만 엔을 200만 엔으로 상한을 인상하였으며 어업법, 수산자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통상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 중국, 홍콩 등지의 건해삼 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일본산 건해삼이 고품질로 평가되면서 최근 가격이 폭등하였는데, 이와 함께 불법어업이 끊이지 않으면

서 적발건수까지 크게 증가하였음

■ 일본, 삼치자원회복계획 일부 변경·승인

- 3월 6일 고베시(神戸市)에서 개최된 제14회 고베내해 광역어업조정위원회에서 삼치 고베내해계군자원회복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승인되었으며 2007년도 멸치 세도내해(瀬戸内海)계군 자원회복계획도 승인되었음
- 삼치 세도내해계군자원회복계획의 경우 자원회복조치를 2011년까지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멸치 세도내해계군 자원회복계획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자원회복조치를 계승하기로 결정하였음

■ 말레이시아, 다랑어 산업에 대한 외국 투자 유치

- 말레이시아 수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국의 다랑어 자원은 아직까지 미개발 상태이며 추가적인 외국 투자를 통해 수산업이 발전되고 수산 분야에서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되기 바란다고 말하였음
- 현재 자국 어선이 잡는 다랑어의 크기는 작고 이러한 어획물들은 주로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반면 외국 어선이 잡는 다랑어들은 주로 신선, 냉동 상태로 수출되고 있으므로 관계자들은 더욱 많은 투자 유치를 통해 자국 다랑어 산업을 발전시키려함

■ 필리핀, 캔 다랑어 수출 증가

- 필리핀 무역 및 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발표에 따르면 캔 다랑어의 수출 증가로 인하여 자국 수출량은 작년에 비해 18% 증가했음
- 구체적으로 작년 다랑어 산업의 매출은 1억 7,430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 지역 상위 10개의 수출품 중 44.6%는 캔 다랑어가 차지하였는데, 이 캔 다랑어의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 유럽, 싱가포르, 일본 등으로 나타났음

■ 인도네시아, 일본시장으로 새우 수출 증가

- 인도네시아는 베트남 새우가 일본시장에서 엄격한 식품안전기준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일본으로의 새우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 인도네시아는 수산분야에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수산물과 수산관련 상품에 대한 수출 세금 감면도 추진하는 등 수산물 수출 강화를 위하여 노력 중임

■ 베트남, 캐나다 식품검사소와 협약 체결

- 베트남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소(National Fisheries Quality Assurance and Veterinary Directorate, NAFIQAVED)는 캐나다의 식품검사소(Food Inspection Agency, FIA) 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올 3월 10일부터 위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또한 기존 수입수산물의 항생제 잔여물 검사 횟수를 대폭 줄이고, 표본 검사량도 수입량의 5% 이하로 줄이기로 합의하였음
 - 이로써 베트남은 상품 검사 과정으로 인해 상품 출시가 늦어지는 사례를 예방하며 신선한 상품을 빠른 시일내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되었음

■ NOAA, 라니냐 발생 근접 경고

- 미국 해양대기청 기상예보센터(CPC)는 2월 28일 2006년~2007년에 발생한 엘니뇨가 약해지면서 동부와 중부 태평양 적도 수역 주변의 표층수온과 저층수온이 평균 이하로 낮아졌는데, 이들 수역에서 라니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음
 - CPC는 태평양 수역에서 라니냐가 발생하면 열대지역의 강수패턴 및 태평양 수역의 풍랑에 영향을 미쳐 세계 각지의 강우 패턴 및 기온에 영향을 준다고 밝힘

■ 미국 알래스카 주, 부시 행정부의 양식생산확대계획 반대

- 알래스카 주정부의 수산인보호단체(Commercial fishers advocacy group)는 3월 12일 발표된 부시 행정부의 양식생산확대 계획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향후 양식 수산물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우려하였음
 - 해면 어업과 양식업은 상호보완관계를 가지는 산업으로써 양식 생산을 확대할 경우 양식 수산물의 가격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시킬 수 있다고 하며 1990년대의 연어양식산업을 그 예로 들었음
 - 또한 이번에 발표된 양식생산확대 계획은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양자원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역시 해양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해면 어업에 어려움

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하였음

■ 스페인 갈리시아, 수산물 브랜드화로 수출 활성화 유도

- 스페인 갈리시아 정부는 갈리시아 청정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소비자에게 인지시켜 상품차별화를 꾀하려던 브랜드마케팅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갈리시아 정부는 갈리시아 지역에서 생산되고 24시간 전에 양육된 수산물에 한해서만 ‘갈리시아 산 수산물’ 이라는 브랜드를 부착시키고 있는데, 향후 이 같은 브랜드 마케팅을 교역 및 자원 관리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함
 - 또한 갈리시아 수산위원회는 향후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산 마케팅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